존 오웬 『죄 죽이기』(박문재 옮김, CH북스 세계기독교고전 64)

10장 죄를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 (2)

『죄 죽이기』 제10장, 인쇄 131~143쪽

🧭 흐름 한눈에

오웬은 죄를 죽이는 두 번째 구체적 지침을 내놓는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죄의 죄책, 위험, 해악을 지성과 양심으로 분명히 알고 늘 마음에 두라는 것이다. 먼저 죄는 “이건 작은 일이야”라고 속여 지성을 흐린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죄가 왜 더 무거운지 보여 주며 죄책을 바로 세운다. 이어 앞으로 닥칠 위험 네 가지를 든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 이 세상에서 받는 징계, 평안과 힘을 잃는 것, 영원한 멸망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미 생기고 있는 해악 세 가지를 든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상처를 드리고, 내 삶을 쓸모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결론은 이것들을 영혼이 떨릴 때까지 묵상하라는 권면이다.

📜 절별 정리

📜 1. 두 번째 지침: 죄는 죄책을 가볍게 보이게 한다

오웬은 지침의 내용을 먼저 밝힌다. 나를 괴롭히는 죄의 죄책과 위험과 해악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라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힘을 쥔 죄악된 욕망은 대표적인 속임수를 쓴다. “이건 작은 일 아닌가? 다른 죄만큼 나쁘진 않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이 정도는 다들 하고, 훨씬 끔찍한 죄에 빠진 사람도 있다.” 나아만이 “림몬 신당에서 몸을 굽히는 것은 용서해 주소서”라고 미리 양해를 구한 것이 이런 마음이다. 죄는 여러 방법으로 지성을 흐린다. 생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약속을 흐릿하게 만들고, 욕망을 들끓게 한다. 잘못된 방법으로 죄를 버리려 애쓰게 하고, 죄를 지어도 자비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한다. 성경의 예가 이를 보여 준다.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 비유로 핑계를 막으시자 비로소 무릎을 꿇었다. 그러므로 죄를 죽이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죄의 죄책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1. 지침 2: 죄책·위험·해악을 늘 기억하라
2. 죄의 첫 속임수는 “이건 작은 일이야”
3. 남과 비교하며 자기 죄를 줄여 본다
4. 욕망은 지성(깨닫는 능력)을 어둡게 한다
5. 다윗도 나단이 오기 전엔 죄를 못 봤다

> **열왕기하 5:18**
> “이건 봐주시겠지” 하고 죄를 작게 만드는 마음의 예
>
>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 **호세아 4:11**
> 음행과 술이 '마음', 곧 깨닫는 능력을 빼앗는다
>
>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 **잠언 7:7**
> 유혹에 넘어간 젊은이는 '명철이 없는' 자다
>
>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 **잠언 7:23**
> 그의 어리석음은 생명을 잃을 줄 몰랐다는 데 있다
>
>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호세아 7:11

에브라임은 지혜가 없어 자기 비참을 깨닫지 못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사무엘하 12:1-7

(오웬이 장절 없이 언급) 나단의 비유가 다윗의 핑계를 막았다

1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2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3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므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4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5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

📜 2. 죄책을 바로 보는 두 가지 생각

오웬은 죄책을 바르게 보도록 두 가지 설명을 준다. 첫째, 신자 안에서는 은혜 때문에 죄의 권세가 약해진다. 그래서 죄가 불신자처럼 신자를 지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남아 있는 죄의 죄책은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더 무거워진다. 로마서 6:2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에서 강조점은 '우리'에 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와 정반대로 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오웬은 신자의 죄가 행위 자체로 더 끔찍하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더 큰 사랑과 자비와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거슬러 죄짓는 것이 문제라는 뜻이다. 둘째, 하나님은 악인의

것과 같은 논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신자를 더 강하게 대적해 낮추신다. 그리스도께서도 죄에 빠진 교회의 신앙고백은 제쳐 두시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실제 모습을 짚으셨다.

1. 은혜는 죄의 권세를 꺾지만 죄책은 키운다
2. 더 받은 사람이 거슬러 짓는 죄라 무겁다
3. 하나님은 성도의 욕망을 더 큰 악으로 보신다
4. 고백이 아니라 실제 행위를 보신다
5. 이걸 알면 핑계가 마음에 자리 못 한다

> **로마서 6:1-2**
> 은혜 받은 '우리'가 죄에 머무는 것은 모순이다
>
>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 **요한계시록 3:15**
> 그리스도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 행위를 보신다
>
>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 3. 위험 ① 죄의 속임으로 마음이 굳어진다

첫 번째 위험은 죄에 속아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다. 완고함이란 고집스럽게 굳어 버린 상태를 말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날마다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게 하라고 당부한다. 죄 안에는 마음을 굳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멀어지게 하는 속임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죄악된 기질은 마음을 조금씩 완고함 쪽으로 끌고 간다. 오웬은 그 과정을 이렇게 그린다. 전에는 말씀에 마음이 녹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일을 생각하면 떨렸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도 아무렇지 않다. 내 영혼과 죄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다. 기도와 말씀을

율법, 천국과 지옥도 똑같이 가볍게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욕망은 마음을 굳히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지성을 눈멀게 하고, 감정을 무디게 한다.

1. 죄에는 마음을 굳히는 속임수가 있다
2. 말씀에 녹던 마음이 점점 무뎌진다
3. 기도를 건너뛰어도 아무렇지 않게 된다
4. 죄를 가볍게 보면 은혜도 가벼워진다
5. 양심 마비, 지성 눈멂, 감정 무감각

> **히브리서 3:12-13**
> 죄의 유혹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니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
>
> 12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식으로 죄는 자라간다."

📜 4. 위험 ② 이 세상에서 받는 큰 징계

두 번째 위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는 것이다. 성경은 이를 보응, 심판, 벌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신자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회초리로 치신다.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저지른 일에는 보응하신다. 다윗을 기억하라. 그는 광야로 도망쳐야 했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짓눌렀다. 오웬은 묻는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자녀나 사업이나 몸을 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벌하신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가? 그러면서 곧바로 오해를 막는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고치실 때 양심이 "내가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고

1. 버리시진 않지만 회초리로 치신다
2. 용서하셔도 행한 일엔 보응하신다
3. 다윗의 환난이 그 본보기다
4. 죄마다 재앙이 따른다는 뜻은 아니다
5. 징계가 두렵지 않다면 이미 굳은 것

> **사무엘하 15:14**
> (오웬이 장절 없이 언급) 죄 이후 광야로 도망친 다윗의 환난
>
>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 5. 위험 ③ 평안과 영적인 힘을 잃는다

세 번째 위험은 평생 평안과 힘을 잃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해 누리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힘은 은혜 언약 약속의 핵심이다. 은혜 언약이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로 맺어 주신 약속이다. 영혼의 생명은 이 둘에 달려 있다. 이것이 없으면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같다. 그런데 죽이지 않은 욕망은 이 둘을 반드시 빼앗는다. 다윗은 그 욕망 때문에 뼈가 으스러지고 영혼이 불안하다고 자주 탄식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탐심의 죄 때문에 그를 치시고 얼굴을 가리셨다. 얼굴을 가리시는데 평안이 있을 리 없고, 치시는데 힘이 있을 리 없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은 백성이 뉘우칠 때까지 자기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신다. 그러니 전에는 평안과 힘이 있었고 연약함 때문에 울며 기도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면, 이 위험이 머리 위에 걸려 있는 것이다. 오웬은 내일이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최소한의 힘과 기쁨마저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나님이 화살을 쏘시면, 영혼이 위로를 거절하고 죽기를 바랄 만큼 깊은 고뇌에 빠질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하나님은 신자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것을 생생히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영혼이 떨릴 때까지 이것을 묵상하라.

3.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평안이 없다
4. 기도할 최소한의 힘마저 잃을 수 있다
5. 영혼이 떨릴 때까지 묵상하라

> **이사야 57:17**
> 탐심의 죄로 하나님이 치시고 얼굴을 가리셨다
>
>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 **호세아 5:15**
> 뉘우칠 때까지 하나님이 물러가시면 평안과 힘이 사라진다
>
>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6. 위험 ④ 영원한 멸망, 그리고 신분과 행실의 구분

네 번째 위험은 영원한 멸망이다. 오웬은 두 가지를 살핀다. 첫째, 죄 안에 계속 머무는 것과 영원한 멸망은 서로 묶여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그 상태에서 건져 내시지만, 죄 안에 머물러 있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멸망에서 건지지 않으신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거나 뒤로 물러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경고한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둘째, 어떤 욕망의 힘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상태로는 자신이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로마서 8:1의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참되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반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멸망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니라는 말인가?” 오웬은 아니라고 답한다. 자기를 판단할 때는 영적 신분과 삶의 행실을 나누어야 한다. 지금 다루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행실이다. 신자는 신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한다. 동시에 악한 길을 계속 걸으면 그 끝은 멸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자의 의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말한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야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에서 나온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멸망하리라 결론짓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오웬이 요구하는 것은 후자가 아니다. 그 길의 끝이 멸망임을 명심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분발하라는 것이다.

1. 죄에 머물기를 고집하면 건짐이 없다
2. 욕망에 붙잡히면 구원의 증거가 흐려진다
3. 신분 판단과 행실 판단은 다르다
4. 악한 길의 끝이 멸망임을 아는 건 의무
5. 목적은 절망이 아니라 그 길에서 벗어남

> **히브리서 3:12**
>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한다
>
>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 **히브리서 10:38**
> 뒤로 물러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
>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 **갈라디아서 6:8**
>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
>
>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 **로마서 8:1**
> 정죄 없음의 위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것이다
>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신자는 자신의 영적 신분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 7. 해악 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위험이 앞으로 닥칠 일이라면, 해악은 지금 이미 생기고 있는 손해다. 첫째 해악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성령은 신자에게 주어져 그 안에 머물며 함께 사신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한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여러 죄를 버리라고 경고한 뒤, 그래야 하는 큰 이유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한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웬은 친구 비유를 든다. 다정한 친구가 마땅히 친절해야 할 친구의 불친절에 마음 아파하듯 성령도 그러하시다. 우리 마음을 처소로 삼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없애려는 원수를 품고 함께 살게 하면 근심하신다. 하나님은 본심으로 사람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근심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오웬은 이렇게 묵상하라고 권한다. "나는 누구인가? 내 죄로 근심하시는 성령은 누구신가? 그분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그러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깨끗이 하려는 가장 큰 동기도 이것이다. 성령이 자기 성전인 마음이 깨끗이 지켜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시므리의 죄가 더 가증했던 것은, 모세와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저질렀기 때문이다. 성령이 지켜보시는 마음에 욕망을 들이는 것도 그와 같다.

1. 해악은 지금 이미 벌어지는 손해
2. 성령은 내 마음을 처소로 삼으신 분
3. 그분의 원수를 품으면 근심하신다
4. "성령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 묵상
5. 깨끗한 마음은 성령의 기쁨이다

> **에베소서 4:25-29**
>
> 버려야 할 죄들의 목록. 30절 동기의 배경

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30

인치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죄 죽이기의 큰 동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레미야애가 3:33

하나님은 본심으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지 않으신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민수기 25:6

울고 있는 회중 앞에서 지은 시므리의 죄. 지켜보시는 분 앞의 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 8. 해악 ②③ 그리스도께 상처를 드리고, 삶을 무익하게 만든다 — 지침의 정리

둘째 해악은 죄가 그리스도께 다시 상처를 입힌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박는 일이라면, 그분이 멸하러 오신 죄를 품고 사는 것은 그분께 상처를 드리는 일이다. 셋째 해악은 죄가 그 세대에서 그 사람의 쓸모를 빼앗는다는 것이다. 그 사람의 일과 수고는 하나님께 거의 복을 받지 못한다. 설교자라면 하나님이 그 사역을 치셔서, 불 속에서 일하는 것처럼 애써도 열매도 존귀함도 없게 된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다. 오웬은 당시 교회를 보며 탄식한다. 죄로 시들어 가는 교인이 가득하고, 아름다움과 영광 가운데 걷는 사람은 드물다. 그 큰 원인 하나가 영혼을 갉아먹는 욕망이다. 그 벌레가 순종의 뿌리와 은혜의 모든 수단을 날마다 갉아먹는다.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이 바람으로 떨어뜨리신다. 오웬은 지침을 이렇게 정리한다. 죄책과 위험과 해악을 마음에 생생히 두고 자주 묵상하라. 그 생각이 영혼을 흔들어 떨게 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

1. 품은 죄는 그리스도께 다시 상처를 낸다
2. 새로운 피조물이 다치고 원수가 웃는다
3. 욕망은 순종의 뿌리를 갉아먹는 벌레
4. 수고해도 열매가 없고 복이 없다
5. 결론: 떨릴 때까지 묵상을 멈추지 말라

> **히브리서 6:6**
>
> (오웬이 인용한 표현)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음. 품은 죄도 그분께 상처를 낸다
>
>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죄책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책임과 허물이다.

죄 죽이기(mortification)
신자가 성령을 힘입어 안에 남은 죄의 힘을 꺾어 가는 일이다.

완고함
죄에 속아 마음이 굳어서 말씀에도 경고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다.

징계
하나님이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면서 고치시려고 이 세상에서 내리시는 회초리다.

은혜 언약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평안과 힘을 주시겠다고 은혜로 맺으신 약속이다.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신자 안에 머물러 함께 사시는 것이다.

인치심
성령께서 신자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해 구원의 날까지 지키시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새로 지으신 거룩한 생명이다.

영적 신분과 행실
신분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의 문제이고, 행실은 지금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느냐의 문제다.

• **점검 질문** ⌄

💬 **청년의 삶으로** ⌄

✅ **이 장의 결론** ⌃

- 죄를 죽이는 두 번째 지침은 그 죄의 죄책·위험·해악을 분명히 알고 늘 마음에 두는 것이다.
- 죄는 “작은 일”이라고 속인다. 그러나 은혜 받은 신자의 죄는 그 은혜 때문에 더 무겁다.
- 품은 죄는 마음을 굳히고, 징계를 부르고, 평안과 힘을 빼앗는다. 그 길을 계속 걸으면 끝은 멸망이다.
- 지금 이미 성령이 근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상처 입으시고, 내 삶의 열매가 갉아먹히고 있다.
- 그러므로 이 사실들을 영혼이 떨릴 때까지 묵상하라. 이 두려움은 절망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은혜의 도구다.

🎬 이 장을 쓰는 편

- 죄 죽이기 9편 · 이 정도는 괜찮겠지? · 죄의 죄책과 위험과 해악을 바로 보기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